

하지만 문 변호사는 주변의 그런 걱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대 공부는 나의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과정이며,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라는 것을 상기하면서 일체의 근심과 부담을 비우고 자신감으로 재충전하곤 했다.

“다행스럽게도 기대했던 것보다 성적이 잘 나와서 자신감을 가지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었으며, 자료 찾기, 타이핑 등 헌신적으로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던 아내 역시 제가 지금의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만든 큰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법대에서 이민법과 가족법, 부동산법 등을 전공한 문상의 변호사는 본인 자신도 이민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이민자들의 초기 정착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법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뜻을 가지고 있다.

의 파트너 Hong Hu는 오클랜드 변호사 협회의 이민, 부동산 분쟁, 민형사법 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6년에 중국을 빛낸 해외인물로 선정된 성실하고 명망있는 변호사다.

정직, 책임감, 성실성과 투명성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있는 Hong Hu Lawyers는 고객 편의를 위해 현재 시티와 노스쇼어에 두 곳에 각각 사무실을 열어두고 있다.

꿈을 위해,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기 위해 만화(晩學)의 길을 걷은 끝에 성공의 열매를 거둔 문상의 변호사.

그는 두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큰아들 문혁진 군은 과학과 수학에 재능이 있어서 현재 오클랜드 대학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 2학년 재학중이며, 영어를 잘하는

## 법대에서 이민법과 가족법, 부동산법 등을 전공한 문상의 변호사는 본인 자신도 이민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이민자들의 초기 정착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법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뜻을 가지고 있다.

대학에 재학 중 해밀턴 무료 법률지원 센터(Community Law Centre)에서 법률 상담을 맡아왔으며, 병원 통역사, 학부모 헬퍼, 병원 자원봉사 등 이민 초기부터 지금까지 크고 작은 봉사활동을 쉬지 않았던 문 변호사는 “각자가 가족을 포함한 자기 주변사람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보살피며 서로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눈다면 이 사회는 보다 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인간의 도리는 자기 것이 많지 않더라도 그것을 덜어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룩한 것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남에게로 시선을 돌려 따스한 손을 내밀려고 합니다. 현재 뉴질랜드에 계시는 많은 교민들께서 뜻 있는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능력이 되는 한 그 분들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여 현재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교민들은 물론 앞으로 이곳에 이민 오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 합니다.”

현재 문상의 변호사는 Hong Hu Lawyers에 몸담고 있다. Hong Hu Lawyers는 차이나스 로펌으로서 뉴질랜드는 물론 제3국에서도 법률회사를 운영하는, 중국 커뮤니티에서는 그 명성이 널리 알려진 회사로 문상의 변호사

둘째아들 문혁찬 군은 시니어 칼리지 Form 7에 재학중이다.

“둘째 혁찬이는 처음엔 아빠 같은 군인이 되고 싶어 육사에 간다고 하더니 제가 변호사가 되니까 지금은 법대에 가서 변호사가 되겠다고 하더군요. 아버지의 영원한 팬이라며..., 아이들 교육은 특별한 것은 없고 시간 날 때마다 대화를 많이 해요. 아이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너 자신만의 목표를 가지고 정진하라. 진정한 성공이란 자신의 목표를 이루었을 때 얻어지는 것이다. 오랜 기간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목표를 세우라. 이루었을 때의 보람은 그 만큼 더 크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준비하라, 그리고 조급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하되 어려운 시련이 닥친다고 해서 움츠러들거나 포기하지 마라. 실패는 포기할 때만 존재한다,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정진하다 보면 기차가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가듯이 성공의 길로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노력하라, 그리고 기다리라,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누구나 알고 있는 진리지만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많지 않듯이...” **K**